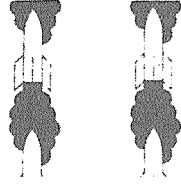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(1988. 6. 1 ~ 6. 30)

- 6. 1 : 科技処,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.
- 6. 1 : 中小企業振興公団, 국내 중소기업과 기술 제휴 및 합작투자 등 산업협력을 원하는 외국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.
- 6. 2 : 工振庁, 자율적으로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138개 업체를 선정.
- 6. 3 : 泰國, 외국기업들의 對泰國 투자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.
- 6. 7 : 商工部,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신규지원대상과제로 공장자동화 관련분야 42건 등 134개 사업을 선정, 오는 10일부터 정부출연금 104억원을 지원키로.
- 6. 10. EC, 역내 통신기기 시장의 개방 및 규격 통일 등 통신시장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.
- 6. 11 : 日本 通産省,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를 일본전기용품 형식 승인 시험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.
- 6. 14 : 美國政府, 한국정부와 법원의 특허권 보호조치가 기대에 미흡하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부처간 특별조사반을 설치.
- 6. 14 : 財務部, 컬러 TV·냉장고 등 전자전기제품 110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내년부터 대폭 내리기로.
- 6. 14 : 商工部, 수출이 격감되고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마인드마저 위축, 앞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매우 부진할 전망.
- 6. 15 : 工振庁, 우량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Q마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.
- 6. 15 : 逋信部, 국내 전산망 기술수

준으로 국제표준인 OSI표준을 채택키로.

- 6. 16 : 日本 大藏省, 일본의 카세트 라디오 시장에서 한국 등 NICS의 마켓 셰어가 크게 늘고 있다고.
- 6. 18 : 逋信部, 그룹 VAN을 통해 계열회사 대리점을 비롯한 거래선까지 VAN 구축이 확대 개방.
- 6. 21 : 商工部, 전자 및 기계 등의 제품 국산화를 산정방법을 개선, 부품의 가격을 실제 소요비용 기준으로 통일하고 외주부품에 포함된 2차 수입부품은 국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계산토록.
- 6. 22 : 工振庁, 공업발전법에 규정된 기술지도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.
- 6. 22 : 政府, 원貨 切上의 가속화·노사분규 등을 감안하여 올 하반기에 7,30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할 계획.
- 6. 24 : 貿協, 선진국의 對韓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입규제아래에서 수출되는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고.
- 6. 24 : 香港 經濟日報, 한국경제계에는 중국시장 진출 열풍이 일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 경제무역부 등 중국당국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.

- 6. 26 : 商工部, 대만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자 및 자전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.
- 6. 26 : 科技院, 스캐너를 통해 입력된 한글문서를 인식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 화일로 저장하거나 스피커를 통해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지닌 한글문서인식 시스템을 개발.
- 6. 28 : 政府, 중국 및 동구권 국가 등 특수지역과의 교역통상 활동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키로.
- 6. 28~7.2 : KOTRA, 헝가리에서 한국상품전 개막.
- 6. 29 : 特許庁, 반도체 칩의 회로소자 배치설계를 새로운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칩 보호특별법(가칭)을 내년에 제정키로.
- 6. 29 : 逋信部, PC·텔리텍스·팩시밀리·비디오텍스 등 복수의 단말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멀티형 통신시스템 서비스가 국내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용화 될 전망.
- 6. 29 : 中小企協中央會, 환율이 弗當 713원대가 되면 국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손익분기점에 이르러 채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분석.
- 6. 30 : 韓銀, 원貨 切上과 노사분규로 5월들어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개방정책에 힘입어 소비재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고.
- 6. 30 : KOTRA, 아시아 제5의 신흥공업경제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泰國과의 합작투자를 증진하고 기술교류·자원공동개발 등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.